제9강 분할술의 의미

(1교시)

분할술의 의미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분할술을 매개(媒介)가 결여된 불완전한 삼단논법으로 평가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분할은 유와 종차(種差)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구체적인 것들을 추상적인 것으로 일반화해 가는 방법이자, 거꾸로 말해 일반적인 것을 (그것에 포함되면서 서로 대립하는) 하위 항들로 종별화(種別化)해 나가는(specify) 방법이다. 그리고 삼단논법은 매개항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동물은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로 분할된다. 인간에게는 척추가 있다. 고로 인간은 척추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볼 때 플라톤의 분할은 삼단논법의 중추인 매개항/중간항이 결여되어 있다.(『분석론 전서』 46b 1) 즉 플라톤(과 그 학파)은 대전제와 소전제를 구분하지 않고서 분할을 행하고 있으며, 정의 대상을 자의적으로 어느 한쪽 항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은 분할의 과정이 한 단계씩 나아갈 때마다 반복된다. 예컨대 인간의 정의는 (동물) – (가사적可死的 동물) – (다리 달린 동물) – (두 다리 동물) – (날개 없는 동물) 등으로 진행되거니와, 매 단계마다 부가되는 술어들에 대해 우리는 "왜?"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이다.(『분석론 후서』 92a 1-3)

아리스토텔레스적 비판에 따르면 플라톤의 분할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다. 출발점 자체가 일정하지 않고, 분류 대상이 분할의 매듭들 여기저기를 돌아다닌다. 분할은 해 놓았지만 분류 대상이 왜 그 중 한쪽으로 분류되는지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분할 자체가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고, 각 방식 사이의 연계성이 분명하지 않다. 그 외에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점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 분할술의 맥락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시 플라톤의 분할법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분류 대상인 소피스트가 분할의 여러 도식들을 변화무쌍하게 돌아다니는 것은 분할법 자체의 문제점이 아니라 소피스트라는 존재의 본성에 관련된 문제이다. 분할법 자체가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고 그 구조가 이질적인 것은 분할법의 논리적 결함이 아니라 그것이 포획하려고 하는 대상 자체의 성격 때문이다. 스나크로서의 소피스트를 포획하기 위해 구성된 아주 기묘(奇妙)한 그물. 플라톤의 분할법을 논리학적 시각에서 보는 것은 "순진한" – 이 말의 니체적 뉘앙스에서 – 것이다. 논리적 구성은 외관일 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적 순진함의 대척점에는 니체적 영악함이 있다. 이 영악한 눈길에 따를 때 우리는 차라리 이렇게 물어야 한다: 플라톤의 분할법은 어떤 'Wille zur Macht'를 감추고 있는가? 'Macht'를 'petentia'(역능)와 'potestas'(권력)로 분화해 이해할 경우(그러나 그 분화의 기준은 정확히 무엇일까?) 여기에서 'Wille zur Macht'는 '권력에의 의지'이다.(물론 이것은 니체에 대한 어두운 독해이다. 그것은 니체보다 더 니체적인 관점이다) 여기에서 우

www.artnstudy.com

리는 플라톤을 계보학적으로 그리고 해체적으로 읽게 된다. 푸코와 데리다의 독해는, 적어도 들뢰즈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교시)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에서 보는 플라톤주의

말하자면 플라톤주의는 길들여지고 있는 어떤 동물과 같다. 이 동물은 자유로운 상태에 있을 때보다는 오히려 막다른 위기에 처할 때 갓 상실한 본성을 더 잘 드러낸다. 바로 그 때 헤라클레이토스적인 세계가 플라톤주의 안에서 으르렁거린다.

변증법은 플라톤주의와 플라톤주의의 전복 가능성을 동시에 말한다.

중간항의 구실을 할 수 있는 어떤 개념적 동일성이 결여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더 나눌 수 없는 최하위 종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커다란 종이다. 이런 거대 종은 분화되지 않은 논리적 소재로 설정된다. 이런 것들은 무차별한 재료나 혼합물 또는 **다양체**가 아니다.

순수한 것과 불순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진짜와 가짜 사이의 차이. 그것은 순수한 차이, 차이의 순수한 개념이지 결코 개념 일반 안에서 매개된 차이, 유와 종 안에서 매개된 차이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경쟁자들의 선별**이다.

플라톤은 탁월한 가짜 지망자를 고립시키고자 한다. 아무런 권리도 없이 모든 것을 지망하는 그 가짜 지망자는 소피스트들이다.

나눔을 통해서 신화는 변증술 안에 통합되고, 변증술 자체의 한 요소로 바뀌게 된다.

원환의 중심이나 발동장치에 해당하는 근거는 신화에서 어떤 시험이나 선별의 원인으로 설정된다. 이 원리는 선별적 분유의 등급들을 고정시키고 이로써 나눔의 방법에 그 모든 의미를 부여해준다. 나눔은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근거로서 원환적 구조의 신화를 요구하고 있다. 거꾸로 신화는 근거지어져야 하는 것 안에 있는 차이의 상태로서 나눔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나눔은 변증술과 신화학의 진정한 통일이다. 나눔 안에서는 정초로서의 신화와 나누는 말로서의 로고스가 하나를 이루고 있다.

www.artnstudy.com